O-1

메이크업 색채 활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화장색 이미지 지각 및 선호도 차이

이 연 희†

진주국제대학교 미용예술학과

1. 서 론

화장은 색으로 신체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장식 수단이며, 특히 얼굴 메이크업은 사회적 인상을 유지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1][2]. 즉, 피부보호나 관리를 위한 기초 메이크업과는 달리 장식적 기능을 강조하는 색조 메이크업은 색 선택과 조화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가 연출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대학 미용 관련학과들의 급증 현상은 기존의 기술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미용교육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용 교육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인의 피부 톤과 화장색에 대한 색채 감성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메이크업 색채 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화장색 이미지 지각 및 선호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국내 색조 화장품 시장 조사, 그리고 화장색 이미지 지각의 차원과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및 색조화장품 판매율에 대한 내용분석과 분광측색계를 이용한 화장품 색 분석 실험, 그리고 자극물과 자극물에 응답할 설문지에 의한 실험조사 연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3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진행되었는데, 1차 예비조사는 20대와 40대 모델 선정을 위한 것이었으며, 2차 예비조사는 설문지 제작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3차 예비조사는 20대와 40대 모델들에게 동일한 화장조건을 적용시킨 자극물 6장을 제작하여 이에 대한 지각자들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목적은 모델의 연령에 따라 화장색 이미지와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 검증을 위한 것이었다. 3차 예비조사 결과, 20대를 모델은 각 자극물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40대 모델의 경우 화장색 조건이 달라도 이미지와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20대

† 교신저자 E-mail yh8170@hanmail.net

1) 大坊郁夫, 對人魅力學からえたメイクアップへの提言, *Fragrance Journal* 10, (1996)

2) Graham, J. A. and Jouhar, A. J., Cosmetics considered in context of physical attractiveness: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 (1980).

모델 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즉, 한 명의 20대 여성 얼굴을 각각 다른 화장조건으로 변화시킨 자극물을 제작한 후, 이에 대한 지각자들의 반응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극물은 모델의 얼굴 피부색과 같은 베이스 메이크업만 한 자극물 1장(본 얼굴), 피부색을 밝은 피부톤과 어두운 피부톤으로 변화시킨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 후, 이들 각 피부 톤에 여섯 가지 입술색 만을 바른 12종류의 입술화장, 그리고 눈, 볼, 입술 화장색을 다르게 조합시킨 다섯 종류의 이미지 메이크업 10가지에 대한, 총 23장의 자극물과 이들 자극물 각각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묻는 질문지에 의한 실험연구로 이루어졌다. 자극물 제작을 위한 피부 톤 조절은 베이스 메이크업 색에 따라 포인트 메이크업 색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 이론[3][4][5]에 근거하였으며, 이 때, 적용된 각 화장색은 화장품 브랜드 중, 색조 화장품 제품 판매율을 대형 백화점과 화장품 관련 마케팅 자료를 분석하여,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외 브랜드 4개의 관련 제품 중, 판매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색을 선정하였다. 또한 질문지는 2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34개의 7점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쌍과 선호도를 묻는 5점 척도 1문항, 그리고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등 4문항을 포함한 총 3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을 수도권, 광역시, 지방도시 등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여, 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고르게 선정한 후, 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직종 중,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편의 표집하였으며, 이들은 전문 조사원 12명이 제시하는 자극물 한 개에 대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1월 한 달간이었으며, 전체적으로 1,656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으며, 1,612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1,574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자료 분석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 t-검정,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으로 이루어졌다.

3.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이크업 색 이미지 지각에 대한 내용을 요인분석한 결과, 친숙성, 지성, 건강, 매력성, 전통성, 젊음 등의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부하량은 각각 .580, .616, .512, .541, .694, .513 이상이었다. 요인별 신뢰도는 .892, .845, .834, .713, .672, 670 이상으로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둘째, 모델의 본 얼굴과 밝은 피부 톤(화운데이션 3.1YR 7.1/4.1, 파우더 1.2YR 8.3/3.0)에서의 각 입술색의 비교에서 6개의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결과 본 얼굴(피부 톤: 6.0YR 7.2/2.6, 입술: 4.8R 5.6/6.7)은 친숙하고 지성적인 것으로, 새먼 핑크(4.1R 6.0/7.6) 입술은 친숙하고 지성적이면서 건강하고 젊게 보이는 색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황(8.4R 4.4/7.3), 빨강(5.1R 3.2/7.0)색 입술은 지성적이지도 친숙하지도 않은 입술색로 지각되었으나, 핑크(5.3RP 6.5/9.9) 입술색은 친숙하고 매력적이며,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진 입술색은 미디엄 브라운(3.9R 4.2/8.5), 그레이쉬 퍼플(6.1R 5.3/3.2), 주황, 빨강 등의 입술색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입술화장을 한 입술이 하지 않은 입술보다 더 전통적인 것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모델의 본 얼굴과 어두운 피부 톤(화운데이션 5.4YR 6.3/4.9 파우더 6.1YR 8.8/2.0)에서의 각 입술색의 비교에서 6개의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밝은 톤의 입술 화장색에서 나타난 결과와

3) Fuji D, Color with Style Tokyo Graphic-Sha, (1991)
4) Jackson C, Color Me Beautiful NY Ballentine Books, (1984)
5) Spillane M, Sherlock C, Color Me Beautiful's Looking Your Best NY Madison Books, (1995)

비교하면, 밝은 톤 피부에서는 새먼 핑크와 핑크 색 입술이 건강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어두운 피부톤에서는 빨강색 입술을 가장 건강하고 매력적이라고 함으로써, 피부톤에 따라 화장색 이미지 또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입술색이지만, 피부 톤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퍼스널 컬러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본 얼굴과 밝은 피부 톤에서의 각 이미지 메이크업간의 비교에서 6개의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얼굴은 친숙하고 지성적인 것으로, 보라(7.4P 7.2/4 2), 노랑(0.4Y 7.3/5.8), 연지(4.5RP 6.2/9.5)의 눈 화장과 새먼 핑크(4.1R 6.0/7.6) 입술, 그리고 핑크(7.6RP 6.9/7.7) 볼화장으로 배색한 로맨틱 이미지 메이크업은 매력적, 엘레강스는 전통적, 쿨은 젊고 매력적이며, 내추럴은 매력적이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6.0YR 8.2/2 6, 미디엄 브라운(5.6YR 5.8/4.3), 다크 브라운(2.7YR 3.5/2.0)의 눈화장, 빨강(5.1R 3.2/7.0)색 입술과 새먼 핑크(6.6R 6 6/7.1) 볼 화장으로 배색한 클래식은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본 얼굴과 어두운 피부 톤에서의 각 이미지 메이크업을 비교한 결과 6개의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본 얼굴은 친숙하고 지성적이었으나, 로맨틱과 쿨 이미지가 가장 친숙하지 않고, 클래식은 가장 지성적이지 않게, 그리고 쿨 이미지 메이크업은 가장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밝은 톤에서 쿨 이미지에 대한 반응과 크게 대조적이다. 그러나 피부 톤에 상관없이 쿨 화장은 가장 젊게 보인 반면, 클래식은 가장 젊지 않게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밝은 색의 포인트 메이크업은 강한 색의 포인트 메이크업에 비하여 얼굴 이미지를 젊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각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선호도 3 0 이상)를 살펴본 결과, 입술화장만을 한 자극물에서는 새먼 핑크색이 피부 톤에 상관없이 지각자들에게 선호되었으며, 이 때, 밝은 톤 얼굴에 새먼 핑크 입술 화장을 한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3.55)가 어두운 얼굴 톤에서의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3.37)더 높았다. 밝은 얼굴 톤에서의 핑크색 입술 또한 선호(3.25)되는 색이었는데, 이는 어두운 얼굴 톤에서의 핑크색 입술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2.64)와 차이가 있었다. 한편, 그레이쉬 퍼플 입술 색은 어두운 얼굴에서는 선호도(3.37)가 높았지만, 밝은 톤의 얼굴에서는 그 정도가 낮았다. 입술색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종합하면, 지각자들은 밝은 얼굴톤의 새먼 핑크색 입술을 가장 좋아한 반면, 밝은 얼굴의 빨강색 입술을 가장 싫어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입술색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퍼스널 컬러 이론이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을 지각자들은 연한 색 입술은 짙은 색 입술보다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미지 메이크업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밝은 얼굴 톤의 로맨틱 메이크업이 선호도 3.37로 가장 높았던 반면, 밝은 얼굴 톤에서의 내추럴 메이크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한편 본 얼굴에 대한 선호도는 3.40으로서 이미지 메이크업에서 가장 선호되는 밝은 톤의 로맨틱 메이크업보다 높았으나, 밝은 톤의 새먼 핑크 입술화장을 한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 3.55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각자들은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보다 연한 입술화장을 한 얼굴을 더 좋아하였다.

화장색에 따라 얼굴 이미지와 선호도가 각각 다르게 평가된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화장색 선택의 중요성과 기존의 퍼스널 컬러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므로, 화장행동에 있어서 피부톤과 화장색과의 조화, 그리고 화장색에서의 배색은 얼굴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피부톤에 적합한 메이크업 색채 활용 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자료를 제공하고, 개인 얼굴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게

함으로써 올바른 화장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大坊郁夫 (1996). 對人魅力學からえたメイクアップへの提言. *Fragrance Journal* 10.

小林重順 (1999). *新・カラーイメージ 辭典*. 東京: 講談社, pp.123-125.

松岡 武 (1999). *色彩とパーソナリテイー*. 東京: 金子書房

春山行夫 (1992). *化粧*. 東京: 平凡社

Adams, G. R. (1985). *Attractiveness Through the Age Implication of Facial Attractiveness over the Life Cycle*.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Praeger Publisher : New YorkGraham, J. A. and Jouhar, A. J (1980). Cosmetics considered in context of physical attractiveness: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

Fujii D. (1991). *Color with Style*. Tokyo: Graphic-Sha.

Jackson C. (1984). *Color Me Beautiful*. NY: Ballentine Books.

Spillane M. and Sherlock C (1995). *Color Me Beautiful's Looking Your Best* NY: Madison Books.